

# 자연 속에 호흡하며 사는 전원생활의 꿈

## 인간환경론에서 체험의 실용적 지혜까지 담아

공해에 찌든 도시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 속에 호흡하며 사는 것은 도시인의 꿈이다. 불황과 경제위기로 대량실업사태가 예고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혼탁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원생활 체험담에서 전원주택을 장만을 위한 세세한 안내서, 공동체생활의 개념과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책까지 다양한 전원주택 관련서가 속속 출간되고 있다.

### 가진 것 버리고 떠나기

최근에 나온 전원주택 관련서로는 《애들아, 우리 시골가서 살자》(디자인하우스), 《전원주택 가는 길, 셋길도 있다》(이코노미스트),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황금가지) 등이 있다.

전원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많다. 전원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준거틀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시골에 내려가는 일이 걱정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대철·박랑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애들아 우리 시골가서 살자》는 용기를 준다. 1983년에 일찌감치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용인 하늘말로 내려온 이들은 철쭉농장을 경영하고 작물을 직접 키우는 등 농촌생활에 적응해왔다. 이 책은 14년간 쌓아온 그들의 전원 경험을 엮은 수필집.

이씨는 대우실업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 30대 후반에 권고사직당한 것을 계기로,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아내 박씨와 함께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향했다.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었는데, 정직한 땅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그만큼의 보답을 꼭 해준다고 강조한다. 묘목과 양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집안의 가구에서 정원테크까지 웬만한 가구들은 농부이자 목수가 된 이씨가 직접 만들었다. 텃밭을 가꾸고 추·상추·가지·호박을 손수 키우며, 팽이꽃풀·로베리아·깊신나물·애기똥풀·팽이밥 등 들꽃 채집으로 야생화 카드를 만들어 파는데, 이 카드는 서울 인사동 등지에서 꾸준히 팔린다.

이 책은 나무심기부터 시작해 비료주는 법, 겨울철 난방법까지, 시골을 휴식처가 아닌 삶터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시골생활의 실용적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주간 《이코노미스트》 이광훈 기자가 쓴 《전원주택으로 가는 길, 셋길도 있다》는 도심에 근거지를 둔 채로 전원주택을 준비하고 정착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경험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전원주택을 얻는 절차와 정보를 담았다. 도시인이 근거 없이 시골에 땅을 사는 행위 자체는 투기로 간주되는데, 저자는 관련 규정의 틈새를 파고들면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시인이 시골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전국 각지를 누벼 찾아낸 전원주택의 사진과 사례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는 좋은 주거환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공해에 찌든 도시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 속에 호흡하며 사는 것은 도시인의 꿈이다. 혼탁한 도시생활을 탈출, 전원 생활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경험담을 담은 이 책은 체험에 바탕한 실용지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휴냄새를 맡으며 사는 전원생활을 하려면 이제까지의 삶의 주거틀을 바꿔야 한다(《애들아, 우리 시골가서 살자》 중에서).



를 다룬 책이다. 일본의 생활환경 계획자이자 '마을 만들기' 전문가인 저자 엔도 야스히로는 "좋은 마을이란 인간적인 환경을 지닌 마을"이라고 정의한다. '마을 만들기'란 주민들의 다양한 개선 요구를 찾아내 자연 친화적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 좋은 환경은 인간이 만든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관여했던 '마을 만들기' 사례 가운데 19개를 골라 소개한다. 숲을 이용해 아이들의 모험놀이터를 만든 도쿄 세카가야지구,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여울길을 만든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매년 시민식수제 행사를 펼치며 60만 그루의 숲을 가꾼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천장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집합주택을 세운

도요나카시 소나이지구 등 그 사례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기자기하고 다채롭지만 모두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고베시 마노지구의 사례도 돋보이는데, 공장과 주거지가 뒤섞여 있는 서민동네인 마노지구는 환경정비를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공해공장을 추방하고 대신 '진흙탕 공원' '낙서공원' '반딧불 공원'이 들어섰다. 이들은 모두 주민자치가 일궈낸 사례들이다. 이 책은 마을만들기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도출방식, 합의·실천 과정 등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간결하고 진지한 저자의 글쓰기도 독자를 끌어들이는

— 마정미 기자

### 한국인의 종교 경험 巫教

차옥송 지음/304면/9,500원

종교학자인 저자가 한국인의 종교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무당과 신도들을 직접 만나 채록한 66가지의 사례를 담았다. 저자가 직접 참관한 내림굿, 재수굿, 마을굿, 우환굿, 뉘굿 등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그에 얽힌 경험들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 자아의 탐색

한지경 지음/240면/7,500원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이 쉽고도 간단한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해석이며, 이토록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원하고 명쾌한 논리적 정리이다. 서양 철학의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불교의 공(空)사상과 자아관이 체계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유장하게 펼쳐진다.

### 존 스튜어트 밀: 생애와 사상

W. 토머스 지음/허남걸 옮김/192면/6,500원

《자유론》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학문을 요약·소개하고 있는 밀 입문서. 수많은 문헌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밀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 책은 비전문가에게도 밀의 사상에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철학만화① 너 자신을 알라

조준상 글·그림/192면/6,000원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끼고 있는 철학을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우리 필자의 글과 그림의 만화로 엮어 기획한 서광사의 철학만화 시리즈 첫권으로 그리스·로마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